

주일에배

오전 (1부) 7시30분
오전 (2부) 7시30분
오후 (3부) 10시
오후 (4부) 12시
금요일전 (1부) 1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주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Jesus Centered News

예수중심교회

2013년 6월 16일 (제694호)

주일에배

오전 (1부) 7시30분
오전 (2부) 10시
오후 (3부) 2시
저녁예배 7시30분
수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1 763-9191

주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서울) 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 (월·주일에배 워킹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칼럼

장점(長點)을 강점(強點)으로

나의 단점을 보완하려 애쓸 것인가? 아니면 내 장점을 극대화하는데 집중할 것인가? 나는 단점을 보완할 시간에 장점을 극대화하여 강점으로 만들라고 말하고 싶다.

세계 최초의 흑인 오페라 가수인 마리아 앤더슨의 일화다. 그녀는 인종차별과 편견이 난무하던 시절에 정말 어렵게 가수가 되기 위한 오디션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뛰어난 입을 감추기 위해 입을 오므리고 노래를 불렀고, 결국 낙방했다. 그 때 심사를 하던 한 사람이 그를 불러 조언했다. “뛰어나는 입술에 신경쓰다보니 실력발휘를 못한 거요.” 이 말에 마리아 앤더슨은 용기를 내어 자신 있게 노래했고, 결국 그녀는 흑인 가수로는 처음으로 메트로폴리탄에서 공연하는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가 되었다.

우리나라 교육에 맹점이 있다. 모든 아이들이 단점을 보완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수학이 딸리니 수학 학원에 다니고, 영어에 약하니 특별과외를 받게 한다. 그러나 아이슈타인을 보라. 그는 학교에서 수학 외에 거의 모든 과목에서 낙제였다. 그런 그가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된 것은 장점인 수학에 주력했기 때문이다. 다른 것은 물라도 남들보다 폐활량이 컸던 황영조는 그것을 살려 마라톤의 제왕이 되었고, 삼성도 핸드폰에 주력하여 세계적인 삼성으로 거듭났다.

나는 단점이 많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목회가 성장하는 것은 뜨거운 열정과 한 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성격, 곧 기필코 이루고 말겠다는 조직적인 정신력을 극대화했기 때문이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내 장점을 최대한 활용했기 때문이다.

당신의 장점은 무엇인가? 단점을 보완하려고 하지 말고 장점을 키워라. 단언컨대 당신은 성공한다.

딱정벌레가 거목을 넘어뜨린다

지난 11일, 동작1기도처에서는 총회장 목사님을 모시고 이전예배를 드렸다.

이날 성전을 가득 메운 성도들에게 총회장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나는 목회나 사업은 물론 삶의 전반적인 것에 성공하는 비결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생각이 변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고착된 생각, 즉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고정관념은 성공의 저해요소입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성공한다’, ‘집안이 좋아야 출세한다’, ‘반드시 성전이 있어야 부흥한다’, ‘암에 걸리면 죽는다’ 등등의 고정관념

둘째, 우리는 생각의 한계를 스스로 갖고 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교회 직원 하나가 갑자기 심장병으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내가 찾아가 기도하여 수술도 하지 않고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 월, ‘선천적으로 심장이 눌리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선천적으로 네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라고 충고해줬습니다. 그럼요, 선천적인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량품을 만들지 않으시고, 불

가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분이 사비를 들여 잔디를 깔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맛과 멋을 지닌 성도, 주의 종,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음식점은 음식 맛이 제일이어야 하듯, 교회도 맛이 있어야 합니다. 전도사가 맛이 있어야 하고, 장로·권사·집사가 맛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거리불문하고 맛질을 찾듯이 기도처를 찾아올 것입니다. 질적 향상을 위해 질주해봅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누가복음 16장 10절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



서울교회 동작1기도처 이전예배(2013년 6월 11일)

을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 성공할 수도, 살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대그룹을 일군 정주영은 누구고, 가난하고 못 배웠고 건강하지 못했던 ‘마쓰시다 전기’의 창업주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누구입니까? 열 두 해 동안 헬륨을 얻던 여인이 나온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영·혼·육의 녹을 제거해야 합니다. 녹을 제거해야 자동차가 앞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에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해 쓰여 있습니다. 거기에는 8복에 대해 말씀하셨다고 우리는 늘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잘 읽어보면 8복이 아니라 9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 예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도 복이 있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의외로 고정관념이 우리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정관념, 그것을 파기해야 복이 옵니다.

필요한 것도 만들지 않으시는 좋으신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삶 속에 넘칠 것입니다.

셋째, 사막에도 물이 있으면 생명체가 살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듯,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는 것을 두고 눈물로 아뢰어 보세요.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신 하나님, 나인성 과부의 눈물을 보신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로 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간구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넷째, 관심은 살리는 것이고, 무관심은 죽이는 것입니다. 주인만이 음식 속에 들어간 머리카락이 동아줄로 보이는 법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지면 교구식구들의 신음소리가 크게 들리고, 그냥 스치고 말 일도 느끼고 보이게 됩니다. 심방은 마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제 사랑이요 관심입니다. 기도원의 권천국 목사님이 기도원에 있는 잔디에서 잡초

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한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고, 한 영혼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급성장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일도 맡기셔서 지금 세계 70여 개국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까?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최선을 다해보세요.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아무리 큰일도 지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법, 오늘의 말씀 하나 하나를 심비에 새긴다면, 머지않아 창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신영서

jesus7857@gmail.com



이초석 목사 멕시코 집회

▶일시: 6월 25일(화) ~ 7월 9일(화)

▶장소:알바라도 & 마쿠스파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약1:14~16)



욕심은 마귀의 덫이다

욕망은 욕심(慾)에 바랄 망(望)으로 '부족을 느껴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고자 탐하는 것'을 의미하고, 소망은 바랄 소(所)에 바랄 망(望)으로, '어떤 일을 바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욕망은 욕심이며, 소망은 희망이고 꿈입니다. 또한 욕심은 여러 가지를 다 가지려는 것이고, 소망은 간절히 원하는 한 가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전적 의미를 넘어 성경적 의미를 보면, 욕심은 곧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이 이를 증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요8:44). 그러나 소망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anka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롬15:13).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는 욕망이 잉태되어 있습니까? 소망이 잉태되어 있습니까? 구별이 쉽지 않다고요? 그렇다면 제가 기준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니까? 불필요한 것인데도 다 가지고 싶습니까? 지나치게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욕심이 당신 안에 잉태된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약1:15).

성공자의 주머니엔 꿈이 있지만 실패자의 주머니엔 욕심이 있다

얼마 전에 저는 100년 된 나무가 10분 만에 잘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하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해 생각도 깊었습니다. 정치계나 경제계의 거물들이 연이어 욕에 들어가고, 심지어 교계에서조차 작금에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들은 100년 된 나무가 10분 만에 잘리는 격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가져보겠다고, 더 높아지려고 하다가 그동안 쌓은 명성과 부귀를 순순히 내린 것입니다. 죽은 자보다 산 게가 낫다고 전도서에 분명히 말씀했건만...

여러분, 욕심은 마귀의 덫입니다. 마귀는 욕심으로 인해 하늘에서 내쫓김을 당한 자입니다. 그는 분시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으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욕심이 발각되어 흑암, 곧 음부에 갇히게 되었습니다(사14:12-14). 그래서 그는 음부, 곧 세상에 내려와 제 바릇 게 맞춘다고 그 덫을 인간에게 놓습니다. 하와

가 바로 그 첫 대상자입니다. 마귀는 하와에게 에덴에 지천으로 널린 다른 과일 나무를 두고, 딱 하나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욕심내게 했습니다. 하여 남편인 아담과 함께 죄를 짓게 함으로 가정을 파탄으로 이끌었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담이 생기게 했으며, 결국 그들을 에덴에서 쫓겨나는 신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인간에게는 오장육부 말고 욕심주머니가 하나 더 붙어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어느 틈에 욕심 주머니가 슬슬 부풀어 오르게 된요. 그러므로 욕심주머니가 부풀어 오르거든 거기에 구멍을 내서 그 바람을 빼 내야 합니다.



점검하지 않은 사람들은의 결과는 상상 이상으로 아프고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많은 처절을 두고 남의 아내를 욕심내다가 눈에서 피눈물을 쏟았고요. 가토 유다는 돈 몇 푼을 욕심내어 예수님을 팔아먹고는 배창자가 터져 죽는 비극을 맞았고요. 권력을 욕심내던 이세벨은 자기를 시종들던 내시에 의해 산 채로 성 밖으로 던져진 후, 개들이 찢어먹는 그야말로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또 아간은 여러고성을 함락할 때 전리품을 욕심 부리다가 자손과 함께 돌에 맞아죽었고, 일천 여인을 취한 솔로몬은 또 어떻습니까? 결국 인생 최대의 보약은 점검입니다.

여러분, 충충이는 술맛이 맞는 겁니다. 남들이 감았 먹는다고 무리해서 감았을 먹으면 100% 탈납니다. 이것은 '못 오를 나무 쳐다보지도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팔자려니' 그러라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분량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를 만들 때 분량에 맞게 지으셨습니다. 너는 간장종지다,

너는 국그릇이다, 너는 밥그릇이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그릇이 좋아보여서, 더 많이 담겠다고 간장종지를 늘리다가는 찢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롬12:3).

독수리가 참새보다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외롭습니다. 거센 바람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참새는 독수리보다 높이 날 수 없지만 오순도순 때를 지어 살아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욕심을 채워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분량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행복한 겁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눅12:15).

저는 가장 큰 그릇은 사이즈가 큰 그릇이 아니라 빈 그릇이라 생각합니다. 욕심, 곧 소유욕을 버리고 성취욕을 가질 때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위대하심은 바로 자신을 비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2:6-8).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살고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아야 합니다(갈5:24-26).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갈5:16).

사해(死海)는 받아들이기만 하지 내보내지 않기에 염도가 높아서 물고기 한 마

리도 살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주위에는 풀 한 포기조차 살지 못합니다. 받아드리기만 하고 조금도 내어보내지 않아 죽음의 바다가 된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면 사람도 사해처럼 죽습니다. 고로 욕심을 버리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나누는 것이 내 안에 풍성함을 누리는 길

인생의 최대 보약은 점검이다 아들 때 보약은 독약이다

입니다. "법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천히 말씀하심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행20:35).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딤후6:7-9).

톨스토이의 작품을 소개하고 글을 맺었습니다. 한 농부가 자기 땅 갓길을 너무 소원하는 것을 알고 성주께 제안을 합니다.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걷다가 다시 출발지점으로 돌아오면 네가 밭은 땅 전부를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농부는 뭘 뜻이 기렸습니까. 마침내 그는 해가 뜨자 뛰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땅을 얻으려고 그는 뛰고 뛰었습니다. 정오가 지났을 때도 그는 멈추지 않고 뛰었습니다. 뉘엿뉘엿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그는 출발점을 향하여 기를 쓰고 뛰었습니다. 그는 간신히 해지기 전에 출발점에 도착했지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그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 온 것이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요일2:16-17). 합렐루야!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 (5,000원)

(060)700-0688

(060)700-0633

(060)700-0288

은행 계좌 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

기원전 250년 경, 고대 그리스 왕 하에로는 금 세공사에게 순금을 내어주고 그것으로 왕관을 만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는 이 순금으로 왕관을 아주 멋있게 만들어서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금 세공사는 왕이 준 순금의 일부분을 빼 돌리고 그 무게만큼 다른 것을 섞어서 왕관을 만들었다.”는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당시의 최고 수학자이자 과학자인 아르키메데스에게 왕관을 주며 “이 왕관이 순금으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해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아르키메데스는 재료 분석기술이 없던 그 당시에 금관의 재료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관의 모양이 복잡하여 그 부피를 알아낼 방법도 도저히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고민을 깊이 해오던 어느 날, 아르키메데스는 목이나 씻고 맑은 정신으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목욕탕에 갔습니다. 그가 탕 속으로 몸을 담그자 탕 안에 있던 물이 밖으로 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탕 속에서 자신의 몸이 약간 가볍게 느껴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으로부터 그는 이 방법을 이용하면 왕관이 순금으로 만들어졌는지 다른 재료가 섞여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욕탕에서 흘러 나간 물의 양이 바로 자신의 몸의 부피와 같다는 점에 착안하였습니다. 왕관을 대야에 넣어서 흘러나온 물의 양을 재고, 왕관과 같은 무게의 순금 덩어리를 따로 다른 대야에 넣어서 흘러나온 물의 양을 잴 때, 이

것이 다를 경우 왕관은 다른 재료가 섞여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떠오른 아이디어에 그는 “유레카!(찾았다, 발견했다는 의미)”라고 외치며, 옷을 입는 것도 잊은 채 집까지 뛰어갔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이론적으로 정립된 것이 그 유명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이며, 이 이야기는 아이디어 창출의 대표사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창조경제’라는 말이 핵심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미래연구원 김광두 원장은 “창조경제란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존 아이디어와 기술의 융·복합, 새로운 아이디어나 융·복합 기술의 사업화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이 활성화되고, 중소대기업간 상생구조가 정착돼 일자리 창출형 성장이 선순환되는 경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창조경제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핵심 근간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는 ‘독창적인 생각·구상·착상’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디어의 기술(A Technique for Producing Ideas)>의 저자 제임스 웹 영은 ‘아이디어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존요소의 결합’이라고 했고, 어느 시인은 ‘조각조각의 경험들과 느낌들을 하나로 묶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아이디어는 개인의 삶, 가정, 교회, 직장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등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양치기가 양들이 울타리에 있

는 가시로 인해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는 것을 보고 철조망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어 세계적인 거부가 된 것, 스티브 잡스가 인간 감성과 컴퓨터 기술을 결합한 아이디어로 스마트폰을 개발하여 인류의 정보화 대혁명을 일으킨 것 등 아이디어로 인한 혁신적 변화 사례는 다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창조적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 철저한 필요를 가지고 기초적 독사님이 설교한 “기필코 정신”으로 아이디어가 나올 때까지 필사적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본이고,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을 쌓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아이디어는 우연히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식과 경험의 바탕에서 나오는 노력의 산물입니다. 아르키메데스의 아이디어가 목욕하면서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 왕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면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에 필사적인 고민이

있었고, 수학적, 과학적 해박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목욕을 하다가 그 해결방안이 보인 것입니다. 둘째,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폭 넓게, 그리고 깊이 있게 쌓는 것입니다. 특히 인문고전은 창조적 기반을 우리에게 제공하므로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사항입니다. 기술자는 인문, 사회, 문화적 지식을, 문화인은 역사, 철학, 과학적 지식을 겸하여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선하고 의로운 목적을 가지는 아이디어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에, 남보다 앞서 창조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개인의 삶과 사회를 윤곽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관섭 장로

kwansup1029@hotmail.com



JC Academy series



귀를 기울이세요

깨닫는 것이 최대의 복이다

지난 5일, JC 아카데미 이시대 목사님의 열왕기하 강해 내용이다.

“열왕기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과정을 그린 책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당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유혹을 좇아가면 결국 멸망에 이르고 말지만,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면 최후 그 날에 가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기회를 얻어야 합니다.”

열왕기하를 통해 깨달을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에게 묻는 행위, 즉 점을 보는 것은 악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아합왕의 뒤를 이은 아하시야 왕이 신하를 시켜 점을 보다가 선지자 엘리야에게 책망을 받고 결국 죽는 이야기가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엘리야가 승천한 후 제자 엘리사가 뒤를 이어 능력을 행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된 것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다니며 그 영감의 갑절을 받기를 분명히 구했기 때문입니다(왕하2:9). 그는 첫 번째로 예리고 성에서 좋지 못한 말 근원에

소금을 뿌려 물을 고치는 기적을 행합니다(왕하2:19-22). 여러분 삶에도 풀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생명의 근원 되는 마음에 소금을 치세요. 그리하면 쓴 물이 단 물로 변하는 것처럼, 삶에 묶인 문제가 풀리는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또한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는 바로 주의 종을 잘 섬기는 마음과 태도입니다.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린 젊은 아이들은 암모에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지만(왕하2:23-25), 아무 것도 바라지 않고 엘리사를 성심성의껏 잘 섬긴 수비 여인은 오히려 구하지도 않은 아들을 얻는 축복을 받았습니다(왕하4:8-17). 뿐만 아니라 자존심 강한 아람 군대의 나이만 장군도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담갔더니, 문둥병이 깨끗하게 낫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왕하5:1-14). 주의 종은 우리를 축복하라고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자들이므로(민6:22-27, 신21:5) 오로지 존경함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진실된 자가 우리는 복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죽이고 바알의당을 부수어 그 자리를 번소로 만드는 등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예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신뢰하였기에 이미 죽음에 정해졌음에도 생명을 15년이나 연장 받은 히스기야(왕하20:1-11). 전에도 후에도 없이 정직하게 하나님을 잘 섬긴 요시아 왕. 이와는 달리 그렇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꼭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지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반박되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주의 깊게 살피고, 돌이켜 회개한 후 진심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평생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신다. 죄악된 소돔과 고모라 성이 결국에는 멸망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선하고 정직하지 못한 개인과 국가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열왕기상·하를 통해 깨달았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삼상16:7), 의인을 시험하사 그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렘20:12) 앞에 오직 순전하고 깨끗한 젊은이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한다.

이국진 기자

joyful_jina@hanmail.net

중세 시대 유럽의 성자 프란체스코와 그의 제자들이 함께 40일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하루를 남겨 놓은 39일째, 젊은 제자 하나가 맛있는 스프 냄비에 이끌려 자신도 모르게 한 손가락을 입에 떠 넣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함께 금식을 하던 제자들은 눈을 부릅뜨고 그 젊은 제자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길은 분노에 찬 정죄의 따가운 시선이었습니

다. 그들은 젊은 제자를 엄하게 꾸짖어주기를 바라며 스승 프란체스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프란체스코가 말없이 수저를 집어 들더니 젊은 제자가 먹었던 스프를 천천히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경악의 눈길로 스승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프란체스코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리라는 것은 모두 예수님의 인격을 닮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기 위함입니다. 저 젊은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스프를 떠먹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를 정죄하고 배척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지금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남보다 금식기도 더하고 예배 더 드린다고 해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경건한 신앙생활은 과연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닮은 우리,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항상 겸손할 수 있기를!

신재식 전도사

blessedmc@naver.com

::정준 그 아름다운 이름::

나를 인정하는 힘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른다는 것의 반대말일까요? 공자는 제자 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아! 안다는 것을 가르쳐 주면? 아는 것은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 곧 아는 것이다.” 아는 것, 뿐만 아니라 모르는 것,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까지, 공자는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요. <논어>를 읽던 중 이 짧은 문장 앞에서 한참 동안 책장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아는 것은 안다 하긴 쉬운데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건 말처럼 쉽지가 않지요. 남들은 다 아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른다고 하면 무식해 보일까봐, 무시당할까봐 모르면서도 아는 척, 다 이해한 척 할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지만 속으로 행여나 내게 질문하지 않을까, 모르는 걸 드러진 않을까 노심조사, 좌불안석이지요.

그런 제게 공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걸 안다, 하는 거

야. 지금 네게 필요한 것은 모르는 것이 없는 완벽한 지식이 아니라 나 이거 몰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이지. 부족하고 모자란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사람은 발전하는 법이거든. 그래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시작하게 되지. 그러니 모르는 것 앞에 당당해져라, 뻔뻔해져라.’

몇 년 전 개그우먼 김미화씨가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세상은, 그리고 우리는>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의아한 캐스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개그우먼이 시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진행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지요. 그런데 그녀는 대다수가 갖고 있었을 그 편견을 아주 보기 좋게 깨트렸습니다. 시사에 능통했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모르는 것을 당당하게 물어보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본인이 모르는 시사용어가 나오거나 듣고도 어려운 내용이다 싶으면 바로 바로

질문하는 거지요. 때론 그녀의 예상치 못한 질문에 전문가들조차 벅벅거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잘 모르는 시사용어를 쓰고 있던 거지요. 만약 그녀가 손석희씨나 어느 아나운서처럼 보이고 싶어 모르는 것도 그냥 아는 척하고 넘어갔더라면, 성공한 김미화씨는 없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을 한없이 움츠러들게 하는 것, 무엇인가요? 무지함입니까? 학벌입니까? 가난입니까?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감추려고만 하면 그것은 당신의 발목을 붙잡는 콤플렉스가 될 뿐이지요. 그러나 당당하게, 뻔뻔하게 인정하고 맞서는 순간, 그것은 당신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될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못났든 부족하든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정작 나를 믿지 못하고, 부정하는 건 나 자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 건 내 모습, 그래도 인정합시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또 한 번 성장할 것입니다.

신은혜

dopal0203@naver.com

Good News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존재의 목적대로 사용하거나 살아가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책상은 책을 보거나 공부하기 위하여 만들어졌고, 침대는 편안한 수면을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딱딱한 책상에서 잠을 자고, 폭신한 침대에서 공부를 한다면, 뭔가 어색하고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재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이며 행복한 삶의 비결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존재 세 가지를 손꼽아본다면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것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존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 분은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통치자시며 섬김과 믿음의 대상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서로 사랑하라고, 태초의 인간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은 사랑의 대상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돈은 선한 일에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주

신 만큼 규모 있게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현대인들의 불행은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자기 필요에 따라 이용하려 하며, 사람을 철석같이 믿거나 돈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을 속이며 살아가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존재의 목적을 깨닫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랍고도 위대한 계획은 누구든지 그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시고, 영혼이 잠깐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세상의 부귀영화를 좇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Edu Section::

창의적인 자녀 교육법

사회는 각 시대에 따라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달라지기 마련이다. ‘동방예지국’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과거에는 자녀들에게 예절과 예의를 강조했었다.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의 흐름에 따라 더 많은 것이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개성과 창의성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개성과 창의성이 없인 살기 힘든 세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통의 생각과 마인드로는 시대에 뒤쳐질 수밖에 없다.

개성과 창의성의 중요함은 요즘 중등교육에서 시행되는 ‘수행평가’와 대학 수업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팀플’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난다. 팀원을 구성하여 함께 의논하고 토론하며 의견의 합일을 이루어내고,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보고 듣고 탐구하며 남이 하지 못한 기발한 생각

을 찾아내야 하는 이러한 활동들은 요즘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의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성과 개성을 지닌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

첫 번째,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녀에게 다양한 사고(思考)의 기반이 되는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사람은 보고 들은 것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관심 있는 많은 분야를 찾아내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둘째, 내 자녀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자녀와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누며, 관심을 가지고 자녀가 평생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을 찾아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줘야 한다. 사람은 실수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실수를 두려워하게 해서는 안 된다. 실수로 인하여 의욕을 상실하고 주저앉은 자녀에게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한다.

자녀로 하여금 드넓은 세상을 알게 하는 것과 그 넓은 세상에서 창의적인 사고와 개성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부모의 몫이다. 방임이나 간섭보다는 자녀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세상을 선물하는 부모가 된다면, 우리 자녀는 개성과 창의성이 풍부한 뛰어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지순아

lovelyactor@naver.com

Q&A

Q: 십 년 전에 남편이 질병으로 인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1년 전부터 함께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남편이 천국에 갔는지 궁금하여 기도할 때마다 꿈이나 환상으로 보여 달라고 강청해왔지만 한 번도 꿈에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과연 남편이 천국에 갔는지 궁금합니다.

A: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롬10:10). 돌아가신 분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으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낙원에서 안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긴 채, 뒤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쫓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마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살아생전에는 부부관계였지만, 돌아가신 후에 영혼세계에서는 성별의 구분이 사라지고 천사들처럼 혼인도 하지 않게 됩니다. 지나간 과거의 정 때문에 생각에 사로잡혀 꿈이나 환상을 보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하여 연민의 정을 가지고 있다 보면 악한 영들에게 미혹될 수도 있습니다.

흘려간 과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현재 나의 신앙과 가족들의 확실한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요3:17). 말씀으로 위로 받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은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고
자연은 헛되이 하는 일이 없다
자연에서 이탈하는 것은
곧 행복해서 이탈하는 것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